

드라마 '태후' 촬영지 캠프 그리브스, 한류 관광지로 급부상

[앵커]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촬영한 파주 민통선내의 캠프 그리브스가 새로운 한류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이곳을 DMZ 생태·안보관광의 거점으로 만듭니다.

김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군인이면 여친 없겠네요, 뽀세서"

평균 시청률 최고 38.8%, 중국 온라인 조회수 30억 뷰를 돌파한 KBS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에필로그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에서 유시진 대위(송중기)와 의사 강모연 팀장(송혜교)이 활약한 가상공간 '우르크'는 바로 캠프 그리브스였습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민통선 안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인 이곳이 한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우선 드라마 속의 천막 막사에서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체된 세트를 재현합니다.

저작권 협의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리고 특별열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로드쇼 등으로 '태후' 팬투어도 널리 알립니다.

경기관광공사 하광수 파트장입니다. (인터뷰) "천막 막사 같은 거를 다시 복원하고 군복 같은 거 입어보면서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하고..."

경기도는 2018년 말까지 34개의 미군 막사에 문화시설을 꾸미는 등 캠프 그리브스를 DMZ 생태·안보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KFM경기방송 김철호입니다.

김철호 seven5@nate.com 수도권에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16.6 cm

"태양의 후예 촬영한 곳이 바로 이곳이지 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싱가포르에서 이틀간 관광설명회 개최

경기관광공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내 '태양의 후예' 관광지를 주제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와 함께 관광 설명회를 지난 22~23일 열었다.

공사는 이틀에 걸친 설명회에서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파주 산머루 농원,

고양 MVL 호텔, 원마운트, 한화 아쿠아 플라넷 등 경기도 여행상품을 소개했다.

또 현지 여행사에서 경기도 한류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의 촬영지인 포천 허브아일랜드, 한국의 치킨을 체험할 수 있는 이천 '제네시스 치킨대학' 등의 관광 정보도 제공했다.

여기에 네이버 팩토리,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 경기도 하루 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등 테마별·일정별에 맞는 세부화된

캠프그리브스 체험 프로그램 등 경기도내 각종 여행상품 소개

내달엔 베트남인 초청 '팬 투어' 한류 드라마 촬영지 등 홍보

설명회로 싱가포르 방한 관광객을 공략했다.

공사는 다음달에는 한국관광공사 하노이지사, 아시아나 항공 등과 공동으로 베

트남 여행업계 및 언론인 초청 '팬 투어'를 벌인다.

이 자리에서 도내 주요 의료시설과 한류 드라마 촬영지, 고양 꽃박람회 및 주변 관광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단체 및 개별 관광객 유치에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단순히 촬영지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들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인 경기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23.8 X 8.2 cm

‘태양의 후예’촬영지 상품화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총력

경기관광공, 현지 여행사 대상 관광 설명회

홍승표 사장 “한류 열풍 다양한 마케팅 주력”

경기관광공사는 4월22~23일 싱가포르에서 ‘태양의 후예’ 도내 관광지를 주제로 관광 설명회를 가졌다.

태양의 후예는 싱가포르에서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뷰(VI U)와 KBS WORLD를 통해 방영됐으며, 싱가포르 언론에서 수차례 관련 기사를 내 놓을 정도로 드라마에 대한 현지 반응이 높다. 이에 공사는 20여개 싱가포르 여행사를 대상으로 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관광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여행상품으로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인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인근에 위치한 파주 산머루농원, 고양 MVL 호텔, 원마운트, 한화 아쿠아플라넷 등을 소개했다. 공사는 ‘별에서 온 그대’로 유명해진 한국의 치킨을 체험할 수 있는 이천 ‘제네시스 치킨대학’, ‘오 마이 비너스’의 촬영지인 포천 허브아일랜드 등의 정보도 제공해 현지 여행사의 경기도 한류 상품 개발을 촉진했다.

또 공사는 22일 저녁과 23일 오전 현지인 150명을 싱가포르 코리아 플라자에 초청, 경기도 개별 관광 워크숍을 개최했다. ‘태양의 후예와 함께하는 경기도’를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 공사 관계자는 촬영지인 분당 정자동 달콤커피와 더불어 네이버 팩토리, 한국민속촌, 에버랜드를 소개해 하루 관광 코스를 소개했다.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은 “태양의 후예 열풍에 착안하여 다른 지자체 보다 선도적으로 단체-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단순히 촬영지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들이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인 경기도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iclee@incheonilbo.com

9.0 X 18.0 cm